생긴 형태만큼 쓰임도 다양했던 석수조

수조

수조는 물을 담아 놓는 물그릇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조를 만들 때 주로 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수조라고 하기보다는 석수조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순 우리말로는 물확 또는 돌확이라고 부른다. 전통공간에 놓인 석수조를 보면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엌 가까운 데 놓고 음식을 장만하는데 필요한 물을 얻기도 하였고, 정원에 놓고 물을 담아 연을 키우거나 물고기를 기르는데 쓰기도 하였다. 석수조의 형태도 다양하여 사각형으로 만든 것도 있고 둥근형으로 만든 것도 있다. 크기도 용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지나치게 크거나 작지 않고 적당하여 보기에 좋다. 한편, 석수조를 하나만 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를 조합해서 쓰기도 하였는데, 형태나 크기 그리고 조합에 따라서 그것이 표현하는 아름다움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석수조가 아주 친근하게 취급되었다. 후원에 놓고 음식 장만하는데 쓸 물을 담아놓기도 하였고, 연못을 파지 못하는 곳에는 연못 대신 사용하여 연을 기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사찰에 남아있는 석수조 가운데에서는 순천 선암사 달마전 뒤뜰에 놓인 삼탕(三湯)이 유명하다. 이 석수조는 형태와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수조를 조합한 것으로, 각각의 형태와 크기가 다르고 조합한 솜씨 또한 일품이어서 멋스럽다. 지금은 4개의 석수조가 연결되어 있으나 예로부터 이것을 삼탕이라고 불러온 것을 보면 원래는 제일 위편에 있는 사각형 석수조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삼탕은 경관요소로 쓰인 것이라기보다는 물을 담기 위한 기능적 용도로 쓰인 것인데, 물은 가까운 곳에 있는 샘에서 나무홈통을 이용해서 끌어왔다. 제일 상부의 석수조에 담긴 물은 다시 대나무 홈통을 이용하여 차례로 다음 석수조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안압지의 입수구에서 볼 수 있는 2단 석조를 연상하게 만든다.

물 담아놓는 물그릇 석수조
순 우리말로는 물확 또는 돌확
사찰서는 예로부터 친근하게 취급돼

선암사 스님들의 말에 따르면 각각의 석수조에 담긴 물은 그 용도가 다르게 쓰였다고 한다. 즉, 제일 상부의 석수조에 담긴 물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수로 썼고 다음 석수조에 담긴 물은 찻물로 썼으며, 그 다음 것은 밥을 짓는다거나 채소를 씻는 등 부엌일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선암사에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차문화가 전승되어 내려오는데, 조왕신을 모신 차 부뚜막과 더불어 이 삼탕이 그러한 선암사의 차문화를 증거하는 것이어서 더욱 귀중하게 여겨진다.

경주 불국사에는 오래된 석수조가 하나 남아있다. 보물 제1523호로 지정된 이 석수조는 사각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조성시기를 통일신라시대까지 올려 잡는 것을 보면 불국사 창건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석수조의 내부 밑바닥에는 아름다운 연꽃문양이 새겨져 있어 물을 담으면 마치 연꽃이 활짝 핀 것처럼 보인다. 또한 석수조의 바깥면에는 돌아가면서 중앙부와 상부에 가로로 도드라진 띠를 새겼으며, 그 아랫부분에는 긴 변 양쪽에 각각 6개, 짧은 변 양쪽에 각각 3개씩 모두 18개의 안상을 조각하여 지극히 화려한 형식을 보인다. 이 석수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지만 연꽃이 새겨진 석수조라면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이 석수조에 연꽃을 심어 감상하였을 것으로 보지만 당시 불국사에 구품연지가 있었다는 것과 바닥의 연꽃문양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용도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청운 · 백운교에서 대웅전 쪽으로 올라가는 동쪽 계단 시작하는 곳에 놓고 옥로수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는데, 이 석수조가 보물이라는 것을 아는 이가 많지 않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우리나라 사찰에는 석수조가 많다.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공주 중동석조(보물 제148호)와 반죽동 석조(보물 제149호), 대전 보문사지 석조(대전 문화재자료 제10호)를 비롯하여 합천 해인사의 대형 석수조, 순천 선암사의 석수조, 순천 송광사의 석수조, 고성 옥천사의 석수조 등이 대표적이다.

순천 선암사 삼탕. 맨 위의 사각 수조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부의 물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수로, 두번째 수조의 물은 찻물로, 그 다음은 공양간 용도로 쓰였다.

해인사의 대형 석수조는 담과 인접해 있다.

순천 송광사 석수조는 사각형이다.

선암사에는 석수조가 여럿 있다.

옥천사 후원의 석수조도 유명하다.

연꽃 형태로 만들어진 승미사의 청동 수조

보물로 지정돼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석수조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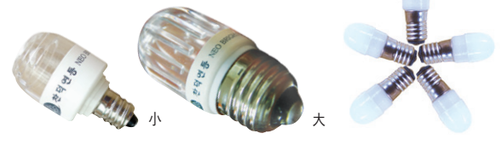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